

광주일보 선정 뉴파워들의 2010년

도전·열정·사랑... 세상을 밝게 빛내다

국민 사랑받는 해경 만들어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환경 출신으로 호남경찰 엘리트의 대표주자. 서울 서부경찰서장과 울산경찰청 차장, 청와대 치안비서관, 인천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독서량이 풍부한 정보 기획력으로, 치밀한 업무처리로 조직 내부의 신뢰가 두텁다.



동산고등학교, 한국사이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 32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경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해양경찰청장 취임 후에는 해양 치안의 중요성에 감안한 조직운영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한나라 광주 첫 10%대 득표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창당 이후 지방선거와 총선·대선을 통틀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 14.2%의 득표율을 올렸다.



비록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한나라당 '불모지인' 광주에서 한나라당이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발전을 견인할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를 출범시킨 뒤,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많은 판결

선재성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

여성·소년·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많은 판결을 남겨 '양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혼 및 소년보호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어려움을 처한 지역 중소기업의 법정관리를 이끌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당수의 경선 결과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려 공명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축구 월드컵 16강 이끌어

허정무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진출 출신으로 2007년 펄 베어백 감독에 이어 한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에 올랐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끌며 한국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한국인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을 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특별공헌상을 받았다. 지난 8월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2007년 12월 전남 드래곤즈에 이어 2년9개월 만에 K리그에 복귀했다.

관절퇴행 치료법 특허등록

문영래 조대병원 교수

환자 자신의 골수 혈액으로 관절퇴행을 치료하는 최신 치료법을 개발, 특허 등록까지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정형외과학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 시술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의 새로운 시술법이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교육용 강의로 실시했다. 그의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 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미국, 캐나다에 거주중인 동포들도 조대병원을 찾고 있다.

금녹차와 금발효차 첫 개발

최영기 보화다원 대표

지난 2009년 세계 최초로 녹차나무 뿌리에 '금(金) 플로리드' 용액을 투입해 차잎에 금미네랄이 함유된 '금녹차'와 '금발효차'를 개발했다. 이를 '황금차'(Gold Tea)라는 브랜드로 일반 녹차보다 10배 비싼 가격에 판매해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국제 유기인증 획득해 국산녹차 품질의 우수성을 높였으며,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차만들기 체험장'을 제공해 차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2010년도 신지식 농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뽑혀

김보곤 디케이산업 사장

금형·프레스 가공업체인 디케이산업(주) 대표를 맡고 있는 기능인 출신 경영자다.



2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뽑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광주시 '광산구민상'(산업진흥부문)을 수상했으며 광주시 '2010년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됐다. 수출도 크게 늘어 지난해 3000만달러 수출달에 이어 올해 5000만달러 수출달을 수상했다.

6·2 지방선거 광주시의회 입성

문상필 광주시의원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북구 3) 선거에 출마해 제6대 광주시의회에 입성했다. 그 동안 장애인 권익과 복지증진에 앞장서온 공로 덕분에 초선의원이지만 환경복지위원장을 겸하는 지력을 보였다. 환복위원장은 활동하면서 광주지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 부랑인 시설 상해사건을 파헤쳐 광주시의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난맥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다문화가정 교육 문제 심혈

서정성 광주시의원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의원(남구 2)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제6대 광주시의회에 입성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중이다. 지난해 의료계와 정치계를 넘나들며 '1인2역'을 해오는 등 바쁜 생활 속에서도,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지정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외고 지정 철회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사)희망나루 대표를 맡아 다문화가정의 복지와 의료지원에 앞장섰던 경력을 살려 의회에 입성한 뒤에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세익스피어 희곡 영화로 출품

김강 호남대 교수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영미 희곡의 전문가. 지난해 영국 세익스피어학회 컨퍼런스 발표자로 선정된 세익스피어학 국내 최고 전문가로 최근에는 미국고등교육연구회와 미국대중문화학회, 대만 국립대 세익스피어 포럼 등에서 세익스피어 관련 논문을 연설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세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에 기초한 단편영화 '레이디 박베수'를 제작해 지난달 열린 광주국제영화제에 출품했다. 세익스피어 4대 비극을 모두 단편영화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높여

강 용 학사농장 대표

1992년 장성 남면에 영농조합법인 '학사농장'을 설립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로확보에 매진해왔다. 지난 2009년말 유기농 과채류를 싱가포르에 수출했다. 국내 영농조합법인 최초로 97종의 농약 잔류검사가 가능한 농약 정밀분석장비를 도입, 안전성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다. 2008년 한국농업 분야의 최고 권위인 '대산 농촌문화상'을 수상하고, 지난 2월부터 (사)한국농수식품CEO 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토종 슈퍼체인 9개 지점 늘려

김성진 영암마트 사장

대기업 유통업체의 공세 속에도 올해말 9개 지점을 늘리는 등 '토종' 슈퍼체인 28곳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의 10~20%는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어린이 도서관인 '바람개비 도서관'과 '도깨비 도서관' 2곳을 비롯해 경로당과 복지단체 등 30여곳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영암출신으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도 앞장서 지난해 10월 영암군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월출인상'을 받았다.

전국연극제 연기상·무대예술상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

연출가 및 배우로 활동중인 오성완씨가 이끄는 푸른연극마을은 시가 처음 추진한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일환으로 '어머니 아름다운 이별 후에' 등 5개 작품을 연달아 올렸고 주부극단 '엘리스 아줌마들'도 운영했다.



전국연극제에서 '사평역'으로 은상, 연기상, 무대예술상을 수상했다. 5·18 30주년 기념작 '오월 비나리' 역시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이다. 보성에서 열린 '우리마을 작은 공연예술제', '한여름밤의 콘서트' 등도 문화계를 탄탄하게 했다.

소비자 감성 자극 문화마케팅

박인철 광주신세계 고객전략팀장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마케팅을 펼쳐 목표와 여수, 순천 등 시외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백화점 방문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친환경 경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푸른광주 21협의회로부터 광주시장 표창도 받았다.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 등 광주·전남지역 우수제품의 판로개척과 전국화에도 힘을 쏟는 등 유통업체와 지역의 상생 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사문학상-젊은 시인상 수상

이대흠 시인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이틀간 1200행의 장시를 쓴 이야기로 유명한 시인이다. 고은 시인으로부터 "지난날의 청천강 저쪽에 백서의 절개가 새겨지고 이로부터 남에 대를 그대의 진술이 들끓는다"는 평을 듣고 있는 이대흠(46) 시인은 대산문학상 시 부문과 목월문학상 후보로 선정됐다. 또 시집 '기가 서툰다'로 '육사문학상'의 '젊은 시인상'을 거머쥐었다. 장흥과 제주도를 오가며 문화제 및 초청강연 등을 하고 있으며 장흥에서 열리는 전국문학인대회를 주도했다. 동화와 동시도 쓰고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계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and the text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and 'www.segistar.co.kr'.

Footer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including phone numbers (1588-8499, 021538-9388) and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ISO, etc.).